



청주고인쇄박물관 고유선 연구원

“인쇄가 뭘까요? 직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놀러오세요. 인쇄의 어제와 오늘을 한꺼번에 보실수 있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쇄에 대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고유선 연구원. 사회 첫발을 청주시청에서 시작해 2000청주인쇄출판박람회 업무를 위해 조직위원회에 파견되면서 인쇄에 대한 인연은 시작됐다.

“행사기간동안 직지 등 한국의 우수한 금속 활자를 접하면서 인쇄문화에 대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인쇄에 대한 미련을 간직한 채 시청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다가 박물관으로 정식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식발령을 받고 나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 기뻐서요.”

고인쇄박물관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사회교육을 실시했으나 그녀가 2001년 이 일을 맡으면서 비로소 제 자리를 잡게 됐다. 대중의 기획과 대중의 강사섭외가 아니라 고인쇄박물관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기획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였다. 우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직지 등 일반 강의는 김귀배(유네스코한국위원회)차장, 우막일 부산대명예교수 등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하고 있으며, 책 꿰매기, 치자 물들이기 등 각종 실습은 홍종진(충북도지정 무형문화재)씨 등이 함께 하면서 강의 질을 높이고 있다.

“본래 박물관의 사회교육은 학예직이 담당하지만 저는 학예전문직이 아니라서 두려움반 기쁨반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두려움이 더 많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며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작은 노력 덕분인지 2년만에 사회교육은 정상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처음부터 잘알고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일을 하면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임남숙기자〉

“직지를 정말 사랑합니다”